

광주시, 대선공약·골목경제 ‘양날개 상황실’ 가동

광주시가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이라는 ‘양날개 상황실’을 가동,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놓는다.

광주광역시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을 구성,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 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공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목경제 상황실’도 함께 운영한다. 소비 진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 논의에 주력하며,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과 지역상권 간 매

강기정 시장 주재 ‘TF회의’…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전략 등 점검
‘대선공약 서울상황실’·민생경제 회복 위한 ‘골목경제상황실’ 운영



침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공공배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시는 또 광주지역 대선공약에 구애 받지 않고 지역 산업과 특성을 살려 대담하고 선제적인 국정과제 신규 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다 속도감 있게 인공지능(AI)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부(가칭)’ 신설을 제안하

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공지능(AI)산업혁신진흥원 설립 및 특별회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새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이전’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며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 ‘골목경제 상황실’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운영한다. 광주시의 양날개 상황실 운영은 소상공인과 광주의 목소리를 키워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 미래를 위한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두 날개를 펴고 광주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도일 기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協, 20일 출범한다
광주 남구 등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양림동에서 창립총회, 협력 사업 등 논의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20일 광주 양림동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16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협의회는 광주 남구와 대구 중구, 청주시, 공주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 김제시까지 8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성격의 기구이다.

대한민국 각지에 있는 개신교 선교기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이날 양림동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협의회를 이끌고 갈 수장을 선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8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점으로 힘을 모은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는데다, 국가유산청도 전국 각지의 선교기지가 잘 보존되고 있어서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만한 가치를 갖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개신교 선교 문화가 전파됐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한국의 근대

기독교 선교기지가 첫 번째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국가유산청의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선교기지는 조성 당시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주요 건축물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진정성’과 ‘완전성’ 조건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협의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각 지역의 선교기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끝마치기로 했으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게 되면 전국 8개 지역의 종교·역사·문화를 한데 아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 국제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다”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문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일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북구, ‘마약’ 관련 단어 포함된 간판·메뉴판 교체 시 ‘최대 250만원’ 지원

마약류 용어 포함 간판(최대 200만 원) 및 메뉴판(최대 50만 원) 교체 비용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간판 및 메뉴판 변경 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당의 상호 및 메뉴명에 부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개선하여 건강한 식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식당가에서는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마약을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단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지

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시 업주가 마약 관련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마약 관련 용어가 포함된 간판 및 메뉴판을 자발적으로 변

경하는 업소에 최대 250만 원(간판 200만 원, 메뉴판 50만 원)까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 용어를 사용 중인 식당에서 간판 및 메뉴판을 먼저 교체한 후 구청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교체 비용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해야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노후 간판 정비·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총력

동구, 장마철 대비 노후 간판 32개 철거, 민관 합동점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0일 장마철을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후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 총 32개소의 간판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노후 간판 정비사업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과 훼손이 심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전수 조사와 건물주 신청, 자체 조사를 통해 위험 간판을 선정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모두 완료했다. 특히 건물주와 상가 관리자에게 자진 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 참여를 높였다.

이달 중에는 위험간판 16개소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해 민관 합동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지역 중심 상권과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위험 수준에 따라 즉시 시정, 안전장치 보강, 정밀진단,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구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지역 내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노후 간판 철거와 안전 점검은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치된 노후 및 위험 간판을 지속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서구, 알레르기비염 예방 인형극 선보인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어린이 대상, 한 달간 10회 운영

른 건강 정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접근성을 고려해

안심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인형극’과 서구청 들불홀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다같이 관람하는 ‘함께하는 인

형극’ 등의 방식으로 총 10회 운영된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알레르기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